

내 딸 보고 싶고 그림이지만 패심한 코로나 때문에 어쩔수 없구나.



장흥 부산면 박연화씨, 수원 사는 막내 딸에게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올해 설을 홀로 보내게 된 시골 노인들의 가족을 향한 그리움도 더욱 커져만 간다. 장흥 부산면에 사는 73세 박연화 할머니는 모정(母情)을 고스란히 담아낸 편지 한 통으로 막내딸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대신했다. 어느새 마을을 훌쩍 넘어 막내딸이지만, 아직 박 할머니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스럽고 미숙해 보일 뿐이다.

‘수원에 살고 있는 내딸 막둥이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하다.

박 할머니의 편지는 막내딸과 사위, 손자, 손녀의 안부를 물으며 시작해 자기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이어 박 할머니는 힘겨웠던 5년 간의 남편 병간호를 떠올리며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쉬엄쉬엄 살려 했는데, 군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어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5년간의 남편 병수발이 어찌 힘들지 않았겠나만은, 그럼에도 박 할머니는 자신은 다시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며 강한 엄마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리움도 오롯이 묻어낸다. 박 할머니는 “내 딸 너무 보고싶고 그림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답답해도 마스크 잘쓰고 올 설은 너희 집에서 조용히 지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예년 같았으면 함께 둘러앉아 쏘아지는 웃음 속에서 명절 이바지로 여념이 없을 때라 안쓰럽기 그지 없다.

그래서 일가 박 할머니는 코로나를 ‘패심한 코로나’라고 부른다. 보는 이를 미소 짓게 만든다.

끝으로 편지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박 할머니는 “서로서로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올 설은 조용히 보내고 코로나 진정되면 고향에 와서 소고기도 구워먹고 재미있게 지내자”고 적어,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절절히 표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원에 살고 있는 내딸 막둥이에게
보고 싶고 그림이지만 내 딸 잘 있었나
사위도 잘 있고 손자 손녀도 건강히 잘 있나
엄마도 잘 있단다 너무 걱정 말아라
너의 아버지 열심히 살으시라
2017년부터 아프신 2017년
동안 가신 그동안 병간호 하는
고생하고 힘들었던 날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 하고
모양 위에 보내지 말고 병간호 하고
비엔 뒤업 뒤업 살려온 했는데
다행히도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있어
엄마도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단다. 그런데
잡작스런 코로나가 와서
너무나 마음 걱정을 하고 있단다.
코로나 시국 편지가 벌써 1년이란
기간이 됐어도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되고 걱정이야.
늘 설 명절이 닥아오고
내 딸 보고 싶고 그림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수 없구나.

답답해도 마스크 잘쓰고
올 설은 너희 집에서 조용히
지내길 부탁 한다.
패심한 코로나가 전세계를
힘들게 하고 자살도 나오
하지만 어쩔 수 없나
애기를 잘 키우고 열심히살라 부탁한다
아름다운 우리 고장 장흥에
많은을 많은 공기 청정 지역 이로서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도 없었다. 정말 다행이지
그래도 서로 서로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올명절은
조용히 보내고 코로나 진정되면
다음에 고향에 와서 소고기도 구워
먹고 재미있게 지내자.
그럼 올 설은 너희 가정 안도스
행복 하길 바란다. 이만 올린다.
장흥 부산면 박연화 엄마 보냄
2021년 2월 15일
보고 싶은 딸사랑해



한국에서의 생활 잘 풀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조선대 유학생 방글라데시 무하마드 물셰드 알람 ‘어머니 전상서’

방글라데시에는 종교적 명절은 있으나 우리의 설과 같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어른들께 세배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명절은 없다. 방글라데시 유학생 무하마드 물셰드 알람씨가 한국인들의 명절인 설을 맞아,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썼다. 그는 어머니에게 부친 편지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했다.

고향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건강 잘 지내시지요? 저는 올 어머니의 예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가족 사진 속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전능하신 은혜로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모두 무사 하길 바랍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 되고요.
요즘 코로나19로 한국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지구 전역에 퍼졌고,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더 엄격한 검역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

은 최근 제2, 제3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방글라데시 유학생들은 고국을 방문할 수 없어요. 정말, 언제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볼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섭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와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의료에 대해 매우 철저합니다. 모두가 빨리 백신을 맞고, 시간이 흘러 전염병이 하루라도 빨리 멈추기를 믿고 있어요. 결국 유행병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조선대에서 공부도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집에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걱정없이 오래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몸 조심하세요.
무하마드 물셰드 알람 조선대학교, 대한민국

প্রিয় মা,
আমি বাংলাদেশ এবং আমার আমার ছাত্র অর্থাৎ হাত লেগেছেন, যাগনি
আরেক কোনো বাংলাদেশে আমারই কর্মসংস্থান রয়েছে। কোভিড-১৯ মহামারিতে
আপনারা এবং তাঁরা এর বিরোধী আছেন। এগিরি দেওয়া খাতির কোনোখাতি
আমার গল্পকোনও কোনোভাবে হয়েছে। কিন্তু, চমকিত হয়েও সত্যি সত্যি
অসম্মানে বসে আছে। এই মহামারী মহামারী গুলী হুটুতে গুলেছে। অন্যায় দেবার
এ দিকম কোভিড-১৯ মহামারীকেন্দ্রিত কার্যক্রম করছে। বিদেশী নাগরিকদের গুল
কর্তার এজিবনমীতি গ্রহণ করেছে। কোভিড-১৯ এর মোকাবেলায় বিভিন্নক্রিয়াকর্ম
প্রতিষ্ঠান ন্যায়িক অসম্মান হুটুতে হুটু। কোভিড-১৯ মহামারীর কারণে বাংলাদেশী
এমন শিক্ষার্থীদের হুটুতে হুটুতে হুটু। কোভিড-১৯ মহামারীর কারণে বাংলাদেশী
যাওড়া বসে আছে মা, আমি জানি না গুলেছে। কখন-কবে আপনার মাতে যেতাবে,
কখন আপনার এটি না। বাসন্ত এবং সত্যি সত্যি সত্যি সত্যি সত্যি সত্যি সত্যি
এ নিতু আরেক চিত্তাভূতা আমি জানি, আমি জানি, আমি জানি। আপনারাও কেন
এম্মুলাব করছেন। আমাকে রিমে চিন্তা করলে না। দক্ষিণ কোরিয়ার অসম্মান
এর আপাতের বিশ্বস্ত্যামত বিদেশী শিক্ষার্থীদের স্বাস্থ্যসেবা নিয়ে অসম্মান
আসন্নিক। আমি জানি আপনি আমাকে নাওড়া সত্যি সত্যি সত্যি সত্যি সত্যি
আপনারাও ছেলে দুটে চাপতে অসম্মান করছে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এই মহামারী একদিন এক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দেখা করবে।
আমার বসন্ত অসম্মান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হুটু
অসম্মান কর্মসংস্থান এবং আরেক কোনোখানে লেগেছে, মা।
স্ব
স্বাস্থ্য রক্ষণকর্ম আমার
ছাত্র বিশ্ববিদ্যালয়, দক্ষিণ কোরিয়া থেকে।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파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